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請求論文

社會的 脆弱階層의 餘暇活動
類型에 따른 價值變化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專攻

金 官 鎬

2011年 8月

碩士學位論文

社會的 脆弱階層의 餘暇活動 類型에
따른 價值變化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金 官 鎬

2011年 8月

社會的 脆弱階層의 餘暇活動 類型에
따른 價値變化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서 용 건

김 관 호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8月

金官鎬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1年 8月

A Study on the Value Changes by Types of
Leisure Activity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Kwan-Ho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ong-Kun Su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Science

2011. August.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
.....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論文概要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가치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바람직한 복지관광 체험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표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영향이 있을것이다, 여가활동 만족은 관광 체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 체험 만족은 긍정적인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 만족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연구분석, 설계모형으로 제시하여 복지관광 체험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복지관광 체험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복지관광 체험 만족은 가치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았다면, 이번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주말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에는 많은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주중 여가활동 참여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가활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Beard와 Ragheb(1980)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만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 평상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일수록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 만족을 갖고 있는 긍정적 대상계층은 복지관광에 만족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회귀모형 적합성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증분석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여가활동 만족과 복지관광 체험만족의 가치변화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는데 복지관광 체험 만족요인은 가치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복지관광 체험만족이 매개변수로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가·관광체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평가 반응(만족이나 불만족) 등이 지각되고, 이러한 것은 회상단계에서 반복적 평가로 가치변화가 이루어 지며 자기발견이란 최상의 욕구에 도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치관의 형성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권장과 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복지관광의 최고의 협력자는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21C,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체계로 변모해 갈 것을 시사했고, 한 고위 여권 인사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자아실현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 통합구조로 선제적, 예방적,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안하였다. 자본주의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사각지대는 발생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분명 발생될 것으로, 공감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관광지, 기념관 등 다양한 여행 바우처 제도의 실행여부 또한 시험대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의 가치변화를 즐기며 할 수 있는 맞춤형 여가·관광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여 자기발견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 및 시민단체, 또는 NGO등 다양한 채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광적 개념이 사랑과 이웃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을 보고 체험하며 혜안을 갖추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창조의 발견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II. 이론적 고찰	6
1. 복지관광	6
1) 복지관광 개념정의	6
2) 복지관광 선행연구	9
3) 복지관광의 대상과 지원정책	11
2. 여가활동	22
1) 여가의 개념 및 여가활동	22
2) 여가활동 유형	24
3) 여가활동 만족	25
3. 관광체험	26
1) 관광체험의 개념	26
2) 관광체험 연구의 유형	27
3) 관광체험 연구의 일반적 동향	28
4) 체험 후 평가에 대한 연구 : 관광만족 연구의 동향	29
4. 가치변화	31
1) 가치에 관한 개념	31
2) 가치변화 이론	33
3) 가치변화를 위한 여가·관광체험 중요성	34
4) 여가·관광을 통한 가치변화	37
III. 연구방법	39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9
1) 연구모형	39
2) 연구가설	39
2. 조사 설계	40
1) 조사의 목적	40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40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40
3.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방법	42
1) 설문지의 구성	42
2)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43
3) 분석방법	44
IV. 실증분석	45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45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45
2) 표본의 여가 형태 특성	46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7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7
3. 연구가설의 검증	51
1) 가설 1 검증	51
2) 가설 2 검증	52
3) 가설 3 검증	54
4) 가설 4 검증	55
4. 분석결과의 요약	56
V. 결 론	59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9

1) 연구결과의 요약	59
2) 연구의 시사점	60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63
<참고문헌>	65
1. 국내문헌	65
1) 서적	65
2) 논문	65
2. 국외문헌	67
3. 기타	69
<설문지>	70
<ABSTRACT>	73

<표 목 차>

<표 2-1>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12
<표 2-2> 근로빈곤층, 근로차상위층 및 근로저소득층의 분포	13
<표 2-3> 복지관광 대상	15
<표 2-4> 복지관광 시행처 현황	16
<표 2-5>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복지관광 무료관광 추진 현황	17
<표 3-1> 설문지의 구성	43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45
<표 4-2> 표본의 여행 형태 특성	46
<표 4-3>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49
<표 4-4> 복지관광 체험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49
<표 4-5> 가치변화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50
<표 4-6> 주중 참여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 차이 분석	51

<표 4-7> 희망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 차이 분석	52
<표 4-8> 여가활동 만족과 복지관광 체험 만족과의 차이 분석	53
<표 4-9> 여가활동 만족과 복지관광 체험 만족과의 영향 관계분석	53
<표 4-10> 복지관광 체험 만족과 가치변화와의 영향 관계분석	54
<표 4-11> 여가활동 만족과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분석	55
<표 4-12> 여가활동 만족과 복지관광 체험 만족의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분석	56
<표 4-13> 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	58

<그림 목 차>

<그림 2-1> 복지관광과 사회복지와의 상관성	9
<그림 2-2> 절대빈곤 계층,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정의	13
<그림 2-3> 관광경험의 심리적 과정	28
<그림 2-4> 여가 경험의 결과	37
<그림 3-1> 연구모형	39

I. 序 論

1. 연구의 배경

복지관광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가치변화에 따른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자는 데 있다. 1982년 OECD에서 제시한 객관적 삶의 질의 사회지표에는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전 등 8개의 관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¹⁾ 문화관광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출한 예산은 2002년도 약121억원으로 전체 문화관광부 예산의 1.1%에 불과하며 2003년 현재 175억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복지관광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특성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관광사업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지, 역사유적지 입장 요금 등을 2005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등으로 할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고령층 관광 모델지구 조성 및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을 과제로 삼고 있다²⁾.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복지관광’ 사업은 보고서(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06)를 통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대상에게 전액 무료로 시행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복지관광의 필요성을 설명해 줄 수 없을 뿐만 아

1) 오정근(2001), 관광체험이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

2) 단아름(2005), 기업의 스텔어드십을 통한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

나라 단기적 사업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광학 분야에서 '여가·관광'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관광이 어떠한 영향을 주며 올바른 가치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보다는 관광의 부가가치, 관광의 파급효과 등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성과 중심으로 연구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가·관광이 인간의 질적인 삶을 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경제적 시각뿐만 아니라 복지적, 인간적,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체계 마련을 위한 관광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³⁾

여가활동 중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형태로 구분되는 관광활동은 생활만족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내적으로 동기화되거나 자유로이 선택된 여가활동은 즐거움의 기회를 주며, 생활만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가활용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 특히 관광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행태는 TV시청 등의 소극적 여가행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청소년의 여가행태와 여가만족을 조사한 비드웰(Bidwell, C. M)척센트 미하이(Csikszentmihalyi) 등(1977)의 연구와 오정근(2001)의 관광체험이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가·관광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여건 등의 이유로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계층을 의미한다.⁵⁾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적극적인 여가·관광활동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여가·관광활동에 대한 박탈감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가·관광

3) 이훈·정철·정란수·이승구·정우철(2004). 여가활동 제약요인 구조모형-PPA와 여가 제약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연구, 16(2), pp.29-48.

4) H. P. Fairchild, ed(1944)., *The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Philosophical Library,p.33

Stanley R. Parker(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MacGibbon and Kee, p.20

5) 신선정(2007).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관광 의미와 제약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1.

활동의 욕구가 경제적 욕구가 충족된 후 추구해도 되는 부수적인 욕구가 아님을 인식해야만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관광활동의 현장에서 느끼는 여가·관광의 의미와 감정을 질적으로 탐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관광활동 욕구를 파악하여 왜 이들의 여가 및 관광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적 취약 계층이 여가·관광체험을 통해 찾아내는 가치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가 격심한 현대 사회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자신의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창조하는 가치변화를 통해 사회적 존재가치와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낸다. 여가·관광활동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관광과 관광체험의 연관성과 가치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복지관광에 관한 문헌연구와 관광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과정을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가치변화에 대한 심리적 변화로 만들어지는 만족 감성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여가활동 유형 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심리적 가치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 국제NGO의 여가·관광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8개 지역의 복지관, 가정개발센터⁶⁾ 축구동아리 체험활동이 제주에서 개최되어 여가·관광체험활동을 통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종합하고, 오늘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복지관광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요인별

⁶⁾국제NGO인 월드비전에서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하는 센터.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현상을 포함하여 모든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고, 연구방법이란 연구에서 제기된 모든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를 말한다.⁷⁾ 본 연구에선 앞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구방법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복지관광, 관광체험,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계획하고 가설을 설정하며, 이를 토대로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empirical study)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결손가정, 차상위 계층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보다 많은 계층, 집단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그 구성비와 사회적·정책적 관심이라는 두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을 구체적인 단계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관광과 관광체험의 연관성과 가치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복지관광에 관한 문헌연구와 관광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과정을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가치변화에 대한 심리적 변화로 만들어지는 만족 감성관계를 실증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둘째, 여가활동 유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심리적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하는데 탐색적 조사연구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 국제NGO의 여가·관광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8개 지역의 복지관, 가정개발센터⁸⁾ 축구동아리 체험활동이 제주에서 개최되어 여가·관광체험활동을

7) 채서일(1992).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학연가. p.7.

8) 국제NGO인 월드비전에서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하는 센터.

통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축구동아리 체험활동이다 보니 남자 참가자가 대부분 이었으며 동일한 관광체험활동을 마친 후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연구의 본질과 상이한 응답이 나올 것을 고려해 설문 내용과 연구 목적을 충분히 전달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항목은 평소 즐겨하는 여가활동과 하고 싶은 여가활동, 여가활동을 통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항목과 관광체험 활동을 통해 가치변화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무엇일까 하는 항목, 그리고 관광체험활동을 통한 만족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방법(survey method)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했으며, 설문지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ed)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 설문을 기초로 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유효 표본을 이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 설계에 의해서 수집했다.

실증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인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조사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 카이스퀘어 분석(chi-Square analysis),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II. 理論的 考察

1. 복지관광

1) 복지관광의 개념정의

복지관광의 기원에 대한 의견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광자체의 발전과정에 따라 발전되었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의 법제화가 시작된 스위스 여행금고 설립(1939)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복지관광제도가 탄생한 1930년대 전후를 사회복지관광의 태동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⁹⁾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 국가의 교류와 미국에서 영국 등의 해외여행 장려로 복지관광의 출현이 시작되었다. 1936년 프랑스의 프롱(FRONT) 정부가 노동자의 휴가권을 인정한 복지법을 채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유급휴가의 원칙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택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1939년 6월에는 스위스 여행금고 협동조합이 창설되어 관광의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던 계층이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복지관광(social tourism)의 개념에 대해 학자를 비롯한 국제연맹기구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그 가운데 복지관광에 관한 정의는 그 목적, 주체, 대상, 방법, 효과 측면에서 크게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있다. 복지관광¹¹⁾을 경제, 신체, 시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관광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시설, 서비스 개발 및 비용보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의 참뜻을 이해시켜 자활의 기회가 되는 정책(협의적 의미)이자 동시에 관광의 참여계층에 대한 관광여건을 개선시켜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광의적 의미)으로 정의하고 있다.

초창기 복지관광의 정의는 1959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Social

9) 신정식(2000).한국의 복지관광실태와 활성화 방안, 『복지행정 논총』 9(2), pp.105-107.

10) 김현(2003).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노인복지관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4.

11) 김현(2003). 상계논문, p.6.

Tourism 대회에서 Hunziker는 “복지관광은 저소득층에 의해서 행해지는 관광의 유형이며, 가능한 한 모든 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1971년 BITS(International Bureau of Social Tourism)는 목적, 주체, 대상, 방법, 효과측면에서 복지관광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주기위하여(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주체) 등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에 제한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대상), 여행경비 또는 여행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들을 수용하는 비영리 여가시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방법), 개인의 개성과 취미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의식과 책임감을 습득할 수 있는(효과) 장을 마련해 주는 사회정책적 조치를 정의하고 있다.¹²⁾ Poplimont(1972)가 정의한 복지관광은 사회적 지원이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지원없이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시되는 관광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¹³⁾ 또 McIntosh(1972)는 ‘여행비나 숙박비를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 또는 단순 노동자들을 위한 관광으로서 주정부, 지방당국, 고용주,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TO(1978)에서도 휴가권 사용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복지관광을 정의하고 있으며, Lundberg(1980)는 노동자 계층을 위하여 정부 또는 기타 조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휴가를 지원하거나 또는 여가시설에 대해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한국관광공사, 1992 재인용). 이에¹⁴⁾ 복지관광을 저소득층이 자비로 넉넉히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의 행정적·경제적 도움으로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보내도록 하는 것 또는 국가나 기업이 시민 또는 종업원들에게 장소, 시설, 재정보조 등의 수단을 통해 관광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한편 1986년 Metalka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신체적 이유를 포함하여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상업적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참여케 하는 것을 복지관광으로 정의하였다.¹⁵⁾ 또한 단순히 저

12) 김은희·이용규·김용완(2003).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 복지관광정책 연구, 『관광연구저널』, 17(1),p.19-34.
 13) 한국관광공사(1985). 국민여가활동과 관광산업, p.96.
 14) 한국관광공사(1985). 상계논문, p.96.
 15) 김현(2003). 전계논문, pp. 6-8.

소득층 즉, 경제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관광의 국민복지적 효과에 주목하여,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시책(提示策)을 펼쳐나감으로서 국민관광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¹⁶⁾이라 정의하는 광의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마닐라 선언, 세계관광대회, 리오테자네이로 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영중(1984)은 자국민 중에서도 관광의 기회가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지원되는 관광이라고 보고 있으며, 김사헌(2001)은 “어떤 형태이든시간에 사회 후생적 형태의 부분적, 유형적 또는 무형적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는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복지의 의미는 인간이 행복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생활의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제도이다.¹⁷⁾

관광행위는 개인의 성취욕구 충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휴가는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명백한 권리이다.¹⁸⁾ 과거처럼 여가를 이용한 행위가 비생산적으로 반사회적이라는 편견은 없어지고 관광이 사회의 빈민층과 부유층의 양극화 현상을 제거하고, 중간계층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를 고려한다면 관광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제약, 경제적 어려움,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의 관광 참여는 사회복지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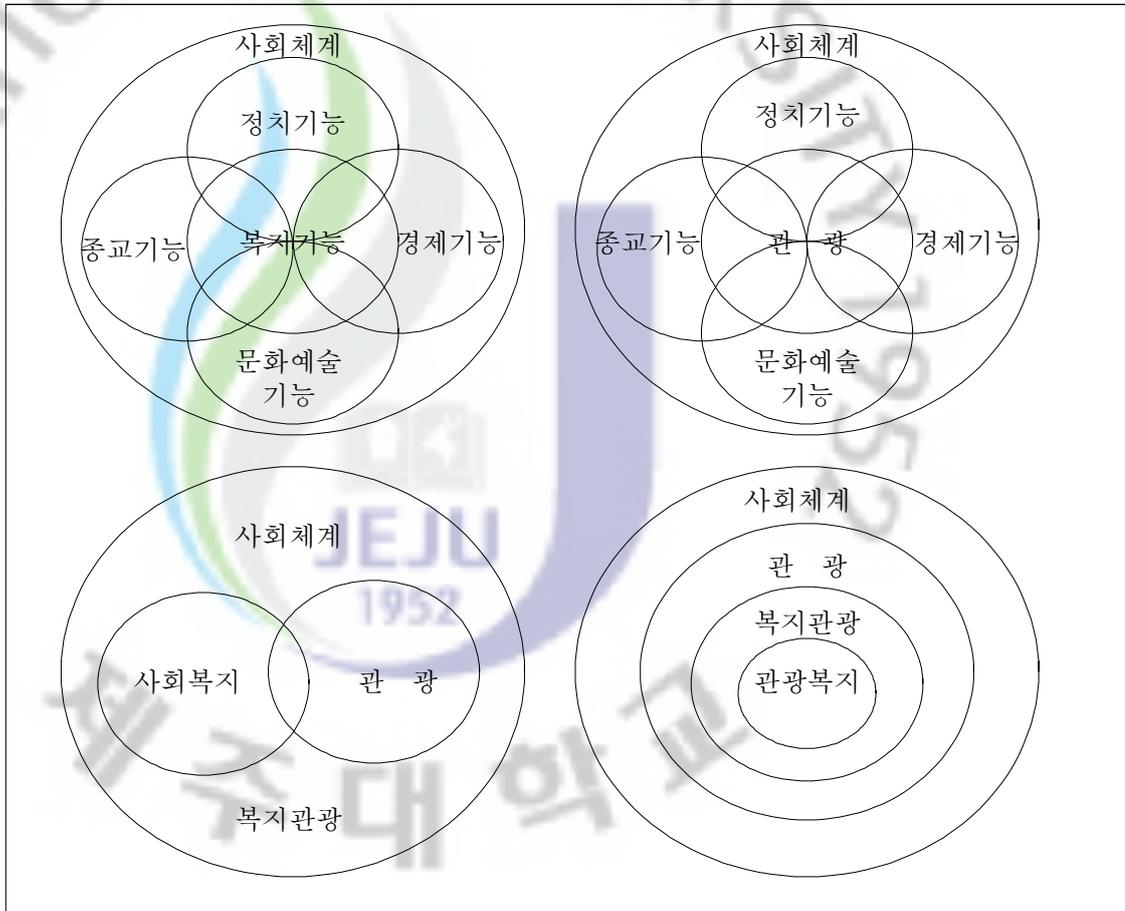
관광의 추구이념이 개인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통한 성취욕구의 충족이라는 면이 강조된 것이다. 관광을 통한 성취욕구는 Maslow의 욕구계층 중에서 자기실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지관광과 사회복지와의 상관성을 나타내면 <그림2-1>과 같다.

16) 한국관광공사(1985). 전계논문, p.97.

17) 단아름(2005). 전계논문, p. 9.

18) 이향구(1991). 관광복지론의 방향, 『한국관광학회』 5, pp.150-151.

<그림2-1> 복지관광과 사회복지와의 상관성



자료: 이장춘(1996). 『복지관광 정책론』, p35

2) 복지관광 선행연구

국내에서의 복지관광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석사학위 논문에서 연구되어 오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졌다. 이장춘(1986)은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이유로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과 관광의 참뜻을 이해시켜 건전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적 차원의 관광기회 제공과 관광 참여계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단체, 학교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며 관광교통수단, 휴가, 관광비용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소정(1989)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복지관광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진흥방안을 모색하였고¹⁹⁾, 윤혜신(1989)은 사회복지와 복지관광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관광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천재석(1993)은 선진국의 복지관광에 대한 발전 배경과 현황분석을 통해 복지관광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장혁래(1994)는 건전한 복지관광의 실현과 진흥을 위한 대책을 위해 국민관광의 현상을 분석하고 복지관광을 위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관광공사(1992)에서는 ‘국민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Social Tourism의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외국의 복지관광의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및 관광정책 입안에 이바지 하였다. 이 같은 복지관광에 대한 연구는 복지관광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신정식, 2000), 사회복지와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윤혜신, 1989) 등 정부에 대한 정책대안이 대부분이다. 이들 논문에서 지적되는 복지관광의 정책적 문제점을 제도상의 미비와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민간단체 등의 무관심과 재원부족 등으로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혜택이 제공됨을 지적하고 있다.(신정식, 2000) 그리고 김은희·이용규·김용완(2003)은 복지관광을 위한 프랑스의 복지관광정책을 사례로 들어 복지관광정책의 연구를 하였다. 2004년에는 ‘복지관광 참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관광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로 인한 정책적 지원 부족임을 밝혔다. 이에 복지관광은 단순히 관광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광시장의 확대, 진정한 국민관광의 실현 등 관광문화의 건강함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면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3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비전서인 ‘창의 한국’을 발간하고 그 외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활동의 필요성과 정책적 접근의 연구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²⁰⁾

19) 김소정(1989). 국민복지관광을 위한 진흥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20) 신선정(2007). 전개논문, pp9-12.

3) 복지관광의 대상과 지원정책

(1)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관광의 주체에 대한 개념은 복지관광의 정의를 살펴볼 때 수혜자의 입장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에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일컫는다.²¹⁾ 이 계층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을 들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들, 곧 재소자나 군인 등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2008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153만명, 장애인 224만명, 노인 507만명, 외국인 근로자 136만명으로 전체 추계인구 4,860만명 중 약 20%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군인이나 보호시설 재소자, 노숙인, 사회복지 시설 재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면 22%가 넘는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복지관, 가정개발센터에 소속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하므로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은 배제하고 실제 복지관광을 체험하는 대부분 아동들이 포함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21) 김세훈·김정열·모선희·설동훈·김미권(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문화관광정책 연구원』, p.18.

<표2-1>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근로자
2006	9,181,146	1,967,326(21.4)	4,556,733(49.6)	1,534,950(16.7)	1,122,137(12.2)
2007	9,806,102	2,104,889(21.5)	4,861,476(49.5)	1,550,000(15.8)	1,289,737(13.1)
2008	10,205,593	2,246,965(22)	5,069,273(49.6)	1,530,000(14.9)	1,359,355(13.3)

※ 자료: 장애인: 등록장애인(보건복지부 자료), 2008. 노인: 65세 이상 인구(보건복지부 자료), 2008.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외국인근로자: 등록외국인근로자+불법 체류외국인(법무부 자료), 2008. 차상위계층자 제외

①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구조에서 하위를 점하는 계층집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분위 하의 40%이하인 집단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법적, 행정적 기준이 적용된다.²²⁾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은 1996년 3.08%에서 2000년 7.97%로 4.8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빈곤층은 같은 기간 8.57%에서 12.87%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²³⁾ <그림 2-2>는 절대빈곤계층,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정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 중 근로빈곤층은 절대빈곤가구 가구원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로 정의하고, 그 현황은 <표 2-2>와 같다.²⁴⁾

22) 최정순(1999). 도시 저소득층의 관광인식이 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5.

23) 신선정(2007). 전계논문, p.12.

24) 보건복지부(2005). 『2005 자활조사 실태조사』.

<그림2-2> 절대빈곤 계층,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정의

중위소득의 60%	저소득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최저 생계비	차상위 계층
소득	절대빈곤층

자료: 보건복지부(2005) 참고

<표2-2 > 근로빈곤층, 근로차상위층 및 근로저소득층의 분포

(단위: %)

구분	2002년 조사=(n=1,078)		2003년 조사=(n=919)	
	가구분포	개인분포	가구분포	개인분포
근로빈곤층	57.7	55.4	43.3	44.0
근로차상위층	27.1	28.0	15.8	16.2
근로저소득층	15.3	16.6	40.9	39.8

자료: 보건복지부(2005) 참고

근로저소득계층 중 편부모 가족은 일반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현저히 낮다. 일반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59만6천원인데 비해 부자가구는 93만 9천원, 모자가구는 78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²⁵⁾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편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도 전체가구의 아동에 비해 2~3배 높은 실정이다.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

25) 신혜령·정세훈·김선경(2006). 한부모 가족 지원 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p.155.

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²⁶⁾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1년에 ICF는 장애를 손상장애(body functions and structures), 활동장애(activities) 및 참여 장애(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이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이라는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97년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해 1999년에 장애 범주가 1단계로 5개에서 10개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에 2단계로 10개 유형에서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²⁷⁾

③ 노인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국가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1951년 7월 미국 Saint Louis시에서 개최된 제 2회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는 노인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aging)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순남, 1989: 문승원, 2004).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서도 ‘노인’을 행정적·법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로 규정하고 있고, 무의탁 노인이 노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나이도 65세로 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노령인구가 2000년 7.3%에서 2003년 8.3%, 2010년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예상치인 17.5%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

26) 법제처(20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2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2006 장애인 실태조사”.

된다. 특히 2050년에는 노인비율이 34.4%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복지관광 대상과 지원정책

복지관광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서 복지관광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과 목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관광의 대상을 광의의 국민적 관점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견해,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곧 빈민, 신체장애자, 공단근로자, 노인, 청소년, 부녀자 등을 지칭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한국관광공사, 1992:47)

<표 2-3> 복지관광 대상

대 상	문 제 점	과 제	
청소년	관광을 즐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름 즐기는 방법이 사회화 되지 않음	관광을 즐기는 자발성·주체성육성 관광도덕 육성, 프로그램 미흡	
장애자· 고령자	관광 참여를 보장할 사회적 조건 미정비 관광에 관한 지식 결핍	장애자·고령자를 위한 관광지개발확충 관광참가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제도정비	
일반인	시간적 장애층	관광할 시간 없음	주휴 2일, 유급휴가제도 정착
	경제적 장애층	관광할 경제적 여유없음	여행자금의 대부, 할부제도, 보조금 등의 도입
	정보소외 장애층	관광정보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입수기 회 부족, 정보이해, 이용불가	관광의 기초정보 편리한 이용 관광정보 알기쉽게 개발, 보급 정보이용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계몽
	기능적 장애인	관광, 위락,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기능, 기술의 보족으로 참가기회 제약	각종 훈련과 교육기회 제공 관광을 즐기기 위한 자발성, 창조성육성

자료: 한국관광공사(1992).국민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현재 복지관광 정책지원은 관광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배려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신체장애인과 근로청소년들에게 관광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으로서 1992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초청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들에게 각종 교통 및 관광요금에 있어서도 할인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관광축진

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사항으로 관광시설을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 및 집합시설 건축시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텔을 비롯한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일정 비율의 휠체어 정비를 의무화 하고, 교통수단의 경우 리프트가 부착된 택시의 도입 및 탑승시설 정비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제까지의 복지관광 시행처 현황은 <표2-4>와 같다.

<표2-4> 복지관광 시행처 현황

내 용	시행처	세 부 사 항
무료초청관광	한국관광공사	관광의 기회가 적은 근로청소년 및 장애인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청관광을 실시
저렴한 숙박시설 건설	정부	복지관광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공급하고자 유스호스텔업으로 일원화하고 국민호텔업을 신설
관광요금 할인	정부 및 각 기관	각종 교통 및 관광요금에 있어서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종업원 휴양소 운영	기업	휴가시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고 또한 일부 공공단체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사업성 휴양소를 운영함
국민휴식공간 확충	정부	야외 휴식공간 및 이용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휴식공간을 개발, 그 중에서도 복지관광의 일환으로 개발된 저렴한 휴식공간으로는 국민관광지와 시범야영장
관광정보 제공	정부 및 각 기관	휴가를 알뜰히 즐길 수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
복지관광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기회를 제공

자료: 신선정(2007).논문 참고 p.40

위와 같이 복지관광 시행처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2001년부터 국민관광상품권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에 소외된 이웃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지관광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관광의 대상자는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소리없이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 사회생활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여행을 실시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은 <표2-5>와 같다.

<표2-5>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복지관광 무료관광 추진 현황

구분	행사명	장 소	대 상	일 정	인 원
제1회	가족의 사랑	제주도	모범소방공무원	2001.11.28-11.30	100명
제2회	가족의 사랑	제주도	척수장애인	2002.05.30-06.01	120명
제3회	가족의 사랑	제주도	모범소방공무원	2002.11.27-11.29	100명
제4회	장애인 사랑	금강산	정신지체장애인	2003.04.14-04.16	60명
제5회	서울도시 문화체험	서울	강원최북단 초등학교 전교생	2003.10.28-10.29	35명
제6회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제주도	애육원 및 소년소녀가장	2004.04.21-04.24	100명

자료 : 신선정(2007).논문참고P.31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국민복지를 실현하고자 적극 추진하였다. 2008년 현재 약4,600명의 대상을 복지관광 지원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11,000명이 복지관광을 통해 여행에 참가하였다. 2008년도는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관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개인이 아닌 복지관 및 외국인 관련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를 관광·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관광 운영회에서 심사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유명 여행지를 여행하는데 국내여행사를 통하여 진행토록 하고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복지관광의 일환으로 초청관광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복지관광은 다분히 형식적, 임의적이라 볼 정도로 미흡하며 시설 측면에서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²⁸⁾

(3) 복지관광의 사례

복지관광은 북유럽에서 시작하여 유럽전체에 확산되었으며, 특히 유급휴가제가 법제화되고 발전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즉, 북유럽의 지리적 여건으로 일광량의 부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광욕을 위하여 휴가여행을 하여야 하는데서 유급휴가의 제도가 발달되었으며 이것이 복지관광의 시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관광의 모범적 사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

28) 신정식(2001). 한국의 복지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복지행정논총』, 11(2),pp103-119.

국의 복지관광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① 미국

미국의 복지관광 정책은 정부주도로 발원된 것이라기보다 YMCA, YWCA, 보이스카웃 같은 민간단체 중심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 단체에서 회원용으로 캠프를 설치한 것이 현상적 발원이라 볼 수 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National Tourism Policy Act” 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국민의 건강·교육·지식의 향상, 국내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시설확충 및 홍보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eritage Conservation and Recreation Service를 창설하여 위락정책과 조사연구 및 계획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안개발이나 관광지개발·숙박시설·도로확충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미국국민들에게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복지관광정책은 주로 공원중심의 관광시설확충과 신체장애자와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유럽 국가보다 앞선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으나 유럽처럼 구체적인 복지관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모든 사람들이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복지관광과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움직임이 형성되어 왔다. 이는 미국이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며 풍부한 관광자원 및 국부를 바탕으로 전체국민이 타인의 지원 없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여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광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많은 부분의 행정 기능이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주정부는 주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간다. 근린공원을 비롯 각종 공공 레크레이션 구역의 공간과 시설을 대부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많은 사적지·기념관·박물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아주 적은 요금만 징수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산업협회, 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 저렴한 관광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살펴보면 레크레이션과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특별부서가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뿐 아니라 개방공간을 확보하고

29) 신정식(2001). 전개논문

레크레이션 서비스 기능까지 담당하기 위해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단체, 문화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복지관광을 수행하고 있다.

② 프랑스

프랑스의 복지관광의 기본전략은 관광의 사회경제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모든 국민들에게 휴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복지관광에 대해서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는 1981년 복지관광을 확장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에 근거, 노동자들의 교육활동 및 위락에 관한 모든 관광활동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특히 복지관광 활동을 담당할 “Minister for Free Time” 이란 기구의 확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Employer’s Organization”과 노동조합 간의 협의에서 연간 휴가기간을 4주에서 5주로 연장시켜 놓았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관광시설 운영 및 여행비 저축, 여행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용자와 운영 보조금을 장기저리로 대역하고 특정기간 세금을 면제하거나 일부 삭감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복지관광의 발전상 지중해형으로서 상업적 관광과는 크게 다른 특수한 구조의 Social Tourism을 만들어 냈다. 프랑스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생활양식이 서로 유사하게 접근해 감에도 불구하고 Social Tourism이라는 독특한 영역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국가, 사회단체들이 기부금을 내 저소득층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사람들은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기타 유사기구의 통로를 통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휴가 투표제도는 생활의 여유가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들이 휴가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광 제도로서 다양한 관광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에 따라 이를 신축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복지관광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③ 일본

일본의 복지관광정책의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면, 1955년 관광사업심의회 Social Tourism연구회의 발족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계속된 일본경제의 구조적 불황과 함께 복지관광 영역도 축소되어 모처럼 일반

대중 생활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관광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8년 당시 일본관광협회 이사인 神田太郎씨는 일본관광 협회가 발간하는 ‘월간관광’에서 ‘관광을 국민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복지관광을 부르짖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수준을 기초로 한 적절한 숙박요금 설정, 이를 위한 시설, 운영, 관리법 연구 및 국철을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수단의 Social Tourism 요금의 별도 설정 등의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일본의 아름다움과 전통 및 역사를 알게 하고 새로운 일본건설에 도움이 되게 하며 사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제2의 Social Tourism’이라고 제창하고 진정으로 관광을 국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이제부터의 관광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神田太郎씨가 제창한 ‘제2의 Social Tourism’은 사실상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지관광정책개발이 가장 잘된 국가로 평가되는데 국민관광이란 용어를 도입하면서 그 용어 속에 대중관광과 복지관광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관광정책은 저소득층,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시책과 제도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적관광, 레크레이션 단지를 국민휴가촌을 비롯한 17개 유형으로 설정한 것에서 그 특색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 준 보호 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 보조를 지원한다.

일본의 복지관광정책은 스위스 같은 제도형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시설형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일본 공적 숙박시설의 하나인 국민휴가촌을 들 수 있는데 국민휴가촌은 국민숙사 등의 여타 공적숙박시설과 달리 해마다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휴가촌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것은 국민숙사와 공적숙박시설보다 지리적, 입지조건이 좋으며 관광활동 특히 놀이시설등이 완전히 갖추어 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가격 대비 질’인데 일본 복지관광 또한 국민의 편리성에 초점을 두고 변하여 가고 있다.

④ 국내

한국 복지관광의 발원은 관광발전과정 중 개발 육성기에 해당하는 1975년에 그 제도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관광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

유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이므로 일면에 권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으면 타면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률상의 구속력(의무)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관광기본법은 바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관광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관광시설의 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종사원의 자질 향상, 관광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케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영역을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법률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기본법의 정신이 다분히 관광기회의 제공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관광기회증대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 한다면, 실제로 한국의 복지관광정책은 이 법정신을 행정으로 수요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관광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인 유급휴가제도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광기회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청소년·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 교통편의 및 휴가방법에 대한 정보전달 면에서 뚜렷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협의의 복지관광정책의 수혜대상인 장애인·노인·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개발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겠다.

결국 한국의 복지관광은 그 기본적인 법규상에는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광정책의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면, 국민관광 진흥이 국민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대와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그리고 법정휴일 증가, 주 5일근무제 확산, 휴가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국민여가시간 증대 등 관광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관광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위와 같이 과거에 비해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관광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속 확대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복지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³⁰⁾

30) 신선정(2007). 전개논문, pp.18-25.

2. 여가활동

1) 여가의 개념 및 여가활동

일반적으로 여가란 의무적인 노동과는 대비적 관계에 있으며 의무나 책임에 의해 전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를 그 어원상으로 볼 때도 여가는 라틴어인 'Licere'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³¹⁾ 'Licere'는 자유롭게 되다 혹은 '허락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이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어떤 교육이나 학습과정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교육의 목적은 여가를 슬기롭게 선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여, 여가를 교육적인 면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자유와 학습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분리불가분의 개념을 갖고 있다.³²⁾

사실상 여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여가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개념화 되어 있다. 즉, 학자에 따라 또는 학문 분야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시간, 활동, 상태,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Kraus는 “여가는 노동이나 노동과 관계되는 일, 또는 개인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개인 시간의 일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는 임의적인 시간, 혹은 비의무적인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³³⁾라고 개념화 하고 있으며 Parker는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학 사전에 의하면, 여가는 1일 24시간중에서 노동, 수면, 기타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한 잉여시간으로 규정되고 있다.³⁴⁾ 또한 점진적으로 발전된 견해로 Dumazedier의 활동적 견해, Neulinger의 상태적 견해, 제도적 견해, 그리고 통합적 견해로 발전되어 왔는데 여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측면으로는 여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간

31) 이종각(1980). 『현대 레크리에이션론』, 경림출판사, p.46.

32) 고갑준(1998). 가족여가 활용을 통한 가족복지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6.

33) R. Kraus(1971).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Appleton Century-Crofts*. 김현녕(1998) 여가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스트레스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34) S. R. Parker(1971)., *The Future of Work Leisure*. London: *Maegibbon and Kee*. 유희영(1999). 여자 중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여가만족 및 몰입경험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7.

적, 활동적, 상대적, 제도적 요소가 적절히 배합된 통합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Gist와 Feva는 여가를 ‘개인의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긴장을 풀며 기분 전환을 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며 또한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³⁵⁾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러 견해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히 남는 시간, 한가로운 시간의 의미를 넘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적 견해로서의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 자기해방, 자기발견, 자아실현, 자기개발 그리고 건강 및 행복추구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개인의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여가활동의 양적 혹은 질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가활동에 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분류기준 또한 다양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경험’으로서 설명되어 진다.

Lintzin(1973)은 여가활동을 동기 및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활동, 정신적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Ragheb(1980)³⁶⁾은 여가활동을 대중매체형 사회적 활동형, 야외 활동형, 스포츠 활동형, 문화 활동형, 취미 활동형 등 6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42개의 세부 종목으로 분류하였다. Chubb(1981)는 여가활동을 주관적 행동을 의미하며 여가의 객체와 매체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Kaplan(1971)은 여가의 가치지향에 따라 여가의 유형을 가치지향형인 사교 활동과 단체 활동, 규율과 전통을 중시하는 게임과 예술, 행동 지향성을 강조하는 이동 활동과 비 이동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가·관광활동은 동기가 작동하여 여가 행동이 진행되면 심리적 차원에서 여가의 체험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체험이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여가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³⁷⁾

35) 한담석(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36) Ragheb. M. G.(1980)., Intert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2), pp.138-149.
37) 성영신 외(1996a). 전계논문, 7(2), pp.32-5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가체험은 개인의 지각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흔히 현지에서 경험하는 반응을 전체관광경험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체만족의 측면에서 보면 현지단계 경험은 전체 경험의 절반 이하에 머무른다고 Clawson과 Knetsch(1966)는 설명하고 있다(박선희, 2001). 즉,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 재미 등은 인지와 정서가 혼합된 상태를 말하고 이는 현장에서 체험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욕구의 발현과 충족에 영향을 주며, 회상 단계를 거쳐 다시 기본욕구의 발로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여가활동은 경험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여가 활동이 여가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밖에 없다.³⁸⁾

2) 여가활동 유형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이 구분되어진다. 여가활동 유형은 서로 비슷한 내면적 특성을 가지며, 각 활동간에 뚜렷한 구분기준이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한 여러 학자들의 분류기준 및 방법, 형태가 제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Jensen은 청소년 여가활동의 유형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유형과 부정적 가치를 가진 유형으로 여가활동의 유형 위계를 분류하고 있으며, Orthner는 여가활동 유형을 개인, 병행, 결합활동 등 동반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Mckechnie는 여가활동을 조작적 활동, 공작적 활동, 지적활동, 일상적 활동, 스포츠 활동, 매혹적 스포츠 활동으로 그 형태를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여가활동을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여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은 벗어난 여가의 분류로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분류하고 있고 이미 이승훈(1996), 오현일(1998) 등이 논문에서 여가활동 유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 활동, 놀이오락 활동, 관광행락 활동, 관람감상 활동, 사교활동으로 나누어진 유형이 있다. 그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청소년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신선정(2007). 전계논문, pp.17-19.

첫째, 스포츠 활동으로는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종목으로 신체의 발달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고, 둘째, 취미교양 활동은 정원 손질이나 가사 돕기, 쇼핑, 독서, 및 도서관 이용활동, 문예활동 등 지식의 확대 등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셋째는, 놀이 오락활동으로 장기, 바둑, 카드 등을 일컫고, 넷째, 관광행락활동은 자연과의 친화와 휴양을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산보, 등산, 낚시, 야유회, 놀이터 및 공원가기 이며, 다섯째, 관람감상활동으로 TV시청, 라디오 청취, 영화, 연극 관람하기 이며, 여섯째, 사교활동은 대인접촉과 애정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 친지 및 친구방문 등 사교활동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참 많이 있는데 청소년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아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와 그에 따라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3) 여가활동 만족

‘만족’은 여가체험을 통해 현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된다.³⁹⁾

여가만족도는 크게 심리적·교육적·사회적·휴식적·생리적·환경적 요인 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agheb와 Griffith(1982)등의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위 요인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⁴⁰⁾

먼저 심리적 요인은 각 개인들이 자연적으로 여가활동 선택이 자유를 제공받게 되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기가 유발된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성취감 향유 및 개성연출,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여가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기쁜 감정, 즐거움, 그리고 자신을 탐구하고 발견하게 되면

39) 이종길 외 3인(1992). 『여가활동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 체육과학논문, 3(1)

40) Ragheb. M. G, & Griffith. C. A(1984).,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 , *Leisure Research* , 14(2),pp.295-306.

이로 인해 활동을 반복하게 된다.

교육적 요인은 여가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여가 활동 속에서도 지적 자극, 즉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새로운 경험, 호기심 충족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기회에 대한 욕구 등을 자연스럽게 발로시킨다. 따라서 여가활동에의 참가는 자기 자신, 타자, 사회, 예술, 그리고 음악에 대한 본질을 학습시키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현대인은 여가를 자유로이 선택하게 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 집단(단체)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기여한다. 이러한 자발적 인간 상호관계는 세 가지 이점, 즉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친구와의 교체 기회, 걱정시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여가활동 참여자는 집단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휴식적 요인을 보면 여가활동은 원기를 회복하고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신체적 요인을 보면 개인은 신체피로회복, 체력증진, 근육 및 심장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도전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활동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킴으로써 체중 조절 및 비만 방지에 도움을 준다.

환경적 요인은 훌륭한 미적 상태는 모든 대상물이 시각의 영역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자질들을 보여 주도록 만들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여가활동 시 물리적 환경들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을 때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줌으로서 흥미와 재미를 더해 줄 수 있다.⁴¹⁾ 이러한 여가만족도의 6가지 하위 요인은 여가활동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관광체험

1) 관광체험의 개념

관광체험은 일련의 관광경험 단계 중 현지경험(one-site experience) 단계에서

41) C. C. Riddick. (1985)., Life Satisfaction Degree of Older Males and Females , *Leisure Science*,7(1),pp.47-63.

보다 활동적인 유형의 관광을 의미하고 있다. 즉, 관광객이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단순히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관광을 말한다.⁴²⁾

관광은 '인간의 지적·사회적인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며, 직접적인 관광체험을 통해 문화수준을 높이고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사실상 관광활동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광을 관광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광은 위락이나 여가 등의 개념 보다는 그 기능상 자기개발 측면이 피로회복 측면보다 강하고 효과측면에서도 생산적 측면이 소비자 측면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험(experience)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으로써, 체험은 감각, 마음, 정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므로 현대 소비자들은 특정한 물건이나 소비체험에 대해 곁으로 드러나는 특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⁴³⁾

관광체험은 '관광을 하는 동안 여러 물리적·추상적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 참여자가 지각하는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느낌 및 행동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여 경험하지는 않으며, 두 개의 체계는 하나의 통일 체계로 작용한다. 또 행동이 어떤 의미로 지닌 것이라면, 여기에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나 정서적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체험이란 구성 개념에는 인지적 내용과 정서적 내용 및 행동요소가 상호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다.⁴⁴⁾

2) 관광체험 연구의 유형

관광체험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 대상이 되어 온 관광 경험의 진실성(authenticity)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하는 동안 개인이 체험하는 심리적 차원을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광체험의 심리적 차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42) 이광희·김영준(1999). 체험관광 상품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p11.

43) 이충기·조윤미(2004). CVM을 이용한 체험관광의 가치평가, 『관광연구저널』, 18(2), pp.217-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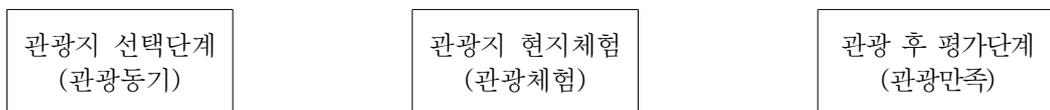
44) 오정근(2001). 관광체험이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31.

몇몇 관광체험을 전제하거나 체험 차원들을 추정가능하게 하는 연구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⁴⁵⁾ 첫째는 몇 가지 관광 체험차원 자체를 질적·양적 방법으로 직접 측정하는 연구들이고, 둘째는 '체험은 사전 동기(혹은 욕구)의 충족 차원과 동일시한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관광동기 혹은 욕구의 차원을 보고하는 연구들이다. 셋째는 관광자의 행동에 근거하여 행동중심의 관광자 역할 유형(role type)을 분류하는 연구들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연구 외에 관광체험의 주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바로 일반적인 여가체험의 심리적 차원에 대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관광활동은 여가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일반 여가 체험이 연구 결과는 관광체험이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3) 관광체험 연구의 일반적 동향

관광체험은 일반적으로 관광자의 행동중심으로 볼 수 있다. 관광경험은 일련의 심리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Gnoth, Fridgen, 고동우 등 관광경험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단계의 진전(progress of stages)을 제안하거나 전제한다. 이 연구자들의 모형을 종합하면, 관광경험은 "관광자는 관광지 선택 단계(관광동기)에서 관광지 현지 체험 단계(관광체험)로 이동하게 되고 관광지 현지 체험 단계(관광체험)로 이동하게 된다"는 심리적 과정으로 단순화하여 그림[2-3]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림2-3> 관광경험의 심리적 과정



관광경험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기존 연구들은 특히 '관광지 선택단계의 심리 상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김인호(1993), Ross(1993)의 개별 관광지에 대한 기대, 신도길(1993), 이태희(1997)의 '관광지 이미지' Goodrich(1992), Ritchie & Zin(1978)의 '관광지 속성 선호도' Crompton(1992), Mensfeld(1992), Van Raaij

45) 고동우(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8.

& Francken(1984)의 의사결정 과정 등은 대표적인 연구 주제들이다.

기존 연구들이 '목적지 선택 단계의 심리 상태'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 Smith(1988)와 Moore, Cushiman, & Simmons(1995) 등의 많은 연구자들은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하여 공급자 측면에서 관광객을 보아왔으며, 관광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관점은 관광 주체인 관광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며, 나아가 이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저해하여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광을 하는 동안 개인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⁴⁶⁾, 개인의 동기나 기대는 변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동기가 유발될 수 있고, 심리적 체험 또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단계 및 체험 후 평가 단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즉, 관광 행동 연구의 목표가 관광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관광자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관광을 하기 이전의 동기나 기대, 태도 뿐 아니라 관광하는 동안의 체험내용, 체험 후 평가의 심리적 상태(만족 또는 불만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⁴⁷⁾ 따라서 관광체험 현상을 중심으로 체험의 전(前) 단계, 관광체험 단계 그리고 체험 후(後) 단계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⁴⁸⁾

4) 체험 후 평가에 대한 연구 : 관광만족 연구의 동향

'만족'의 개념은 관광체험의 후속 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이다. Lounsbury & Polik(1992)은 관광에서 '전반적인 사후 만족(overall post-hoc satisfaction)'은 '관광 참여자 자신이 관광체험 총체에 대한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관광체험 총체에 대한 일종의 태도'라고 보았다. 즉, 관광만족은 관광하는 동안의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개인이 내리는 전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관광만족 연구에 대한 전통적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Oliver (1977)의 기대-수행 불일치의 인지적 접근이다.

46) J. D. Fridgen(1984).,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2), pp.19-39

47) R. C. Mannell., & S. E. Iso-Ahola(1987)., Psychological nature, of leisure and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p.314-331.

48) 고통우(1998). 선행 관광행동 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22(1), pp.208-209.

그런데 관광 만족의 정의 혹은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관광행동연구의 초창기인 1970년대에 가장 먼저 발견되는 연구는 Pizam 등(1978)의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관광만족이 특정 목적지에 대한 사전 기대와 현장체험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목적지의 8개 속성별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관광속성 이론의 발전과 만족 연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속성별 측정 사례는 국내의 경우 신도길(1993)의 연구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만족 측정 방식은 Maddox(1985), Mazurskey(1989) 등에 의한 전반적 평가 형태가 두드러진다. 즉, Geva & Goldman(1991), Van Raaij & Francken(1984) 등에 의해 대체로 사전 기대의 차원에 의존하여 만족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방식에서는 전반적 평가 점수로 산출한다. 이런 경우, '기대-수행 (불)일치'와 '전반적 만족'은 서행과 후행의 관계가 되며, 기대점수와 수행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두 변수의 차이 점수를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종속변수의 전반적 만족도는 일반적인 평가 점수로 산출한다.⁴⁹⁾

한편, 김인호(1993), Ross(1993) 등은 관광만족을 사전 기대의 충족 정도로 간주하여 사전 기대와 수행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각 차원별로 기대가 충족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런 경우 기대의 측정 차원과 수행이나 만족의 측정 차원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포괄적인 측정 유형은 Moscardo & Pearce(1986), Stewart & Hull IV(1992) 등에 의한 관광만족을 여러 가지 개념의 측정치 합으로 지수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여행이 즐거웠던 정도'와 '다른 사람에게 여행장소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도', '재방문의도' 등을 평균한 점수로 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Moscardo와 Pearce(1986)는 '역사주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면서 참여자 개인이 '경험이 즐거운 정도'와 '친구에게 추천할 의도'를 합하여 만족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 Stewart와 Hull IV(1992)은 만족 측정의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체험 만족도(on-site satisfaction)'와 '사후만족도(post-hoc satisfaction)'의 개념적 구분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후만족의

49) D. Mazurskey(1989)., Past experience and future tourism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pp.333-344.

A. Geva & A. Goldman(1991)., Duality in consumer post-purchase attitud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 pp.141-164.

하위 요소로 ‘여행경험이 비용에 비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재방문의도’, ‘기대 충족 정도’등을 함께 측정한 후 그 점수를 합하여 지수화 하였다.

Geva와 Goldman(1991)은 ‘만족의 개념’이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인 연구로 잘 지적하였다. 즉, 관광객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더라도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는 낮을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관광객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한 후 합리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Mazurskey(1989)는 관광체험과정에서 ‘장래 행동 의도’는 관광지에 대한 기대와 기대 불일치 수행만이 아니라 과거 다른 경험, 사회적 규범 및 만족의 정도가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관광 후 평가의 심리적 변수는 최소한 네 종류의 개념으로 구분 가능하다. 하나는 관광활동을 통하여 여려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광객 자신의 총체적 관광체험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 관광 만족’이며, 둘째는 관광지의 하위속성 관련체험들에 대한 평가인 ‘관광지 만족도’, 셋째, 참여자가 해당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의향의 정도를 뜻하는 ‘재방문의도’이며, 마지막으로 관광지를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추천할 의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추천의도’이다.

한편, 관광경험 과정이 ‘관광지 선택(관광동기), 현장체험(관광체험), 후속평가(관광만족)’의 단계를 거친다면, 후속평가의 선행 단계인 현장체험내용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만족과 같은 사후 평가의 규명도 가능해진다. 특히 의식상의 사전기대나 동기가 변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 안 된 욕구가 새롭게 활성화 되고,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체험이 이루어진다면, 기대수행 불일치 모형대신에 체험과 사후평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⁵⁰⁾

4. 가치변화

1) 가치에 관한 개념정의

50) 오정근(2001). 전개논문, p.44.

가치란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바람직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⁵¹⁾(Rokeach, 1973; Schwartz, 1992; Sousa & Badley, 2002). 이러한 가치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Meglio & Rovlin, 1998:354).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태나 사물을 평가하게 된다(Schwartz, 1990).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사람들의 성장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개인별 달리 형성된 가치는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고 한다(Schwartz, 1992; Sousa & Badley, 2002). 이와 관련 Inglehart(1997)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되는 경우조차도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초기의 가치가 성년기에 이르러 변할 수는 있지만 어린 시절 형성된 가치가 개인의 행태나 행동규범을 보다 폭넓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⁵²⁾

가치에 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여 이을상(1997)은 가치개념을 “감지작용” 또는 “감지하는 의식”의 상관적 개념으로 보았고, Hessen. J (1992)는 모든 가치는 인간의 주관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주관은 감각적·정신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치를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매슬로(H. Maslow)는 여덟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시하면서 인간은 수많은 서로 다른 욕구들을 실현시키고자 행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생리적 욕구가 비교적 잘 채워지면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심미적인 욕구들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치의 선택 혹은 선호의 순서가 된다는 것이다. Hessen(1992)은 이러한 가치를 목록화하여 모든 가치는 감각적인 가치들과 정신적인 가치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감각적인 가치란 쾌락가치, 생명가치, 경제적인 가치들을 말하며 정신적인 가치란 논리적 가치, 윤리적 가치, 미학적 가치, 종교적 가치들을 의미한다고 분류하였다.

51) M. Rokeach(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C. Schwartz(1992)., *Reproductive biology of North American moose*, Alces, 28, pp.165-173.

52) J. A. Krosnick., & F. D. Alwin(1987)., 『An evaluation of a cognitive theory of response order effects in survey measure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51, pp.201-219.

이상 학자들의 사상을 정리하면 가치란 인간의 주관적인 부문으로 행동의 방향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개념이며 가치관은 그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있어 가치판단이나 가치선택을 할 때 일관되게 적용하는 가치기준과 기초적 환경적 요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써 작용하며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규범적 표준, 즉 바람직하고 정의적인 속성을 지닌 행동의 표준인 것이다.

2) 가치변화 이론

가치변화는 경제발전, 교육의 보급, 매스미디어의 증대와 이전 세대와의 생활 경험의 차이 등에서 그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가치변화 요인을 특정한 상황변화보다는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한다. 세대별로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이 상이하어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단계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점차 집단적, 보수적, 자기초월적 현상이 강화되고, 개인적, 진보적, 자기강화적 요소는 줄어들어온다고 한다. Inglehart(1997)은 역시 가치변화의 주된 요인이 세대차임을 지적한다. 세계 주요 43개국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혼란, 전쟁, 경제적 가난과 같은 사회경제적불안정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는 뚜렷한 가치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Schwartz 등은 1987년 개인의 가치구조 연구를 시작한 이래 후속 연구를 통해 세대차와 가치변화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불안정을 겪은 세대는 보수적, 자기 강화적 가치를 갖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대는 개방적이고 자기초월적인 가치를 가지며,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화됨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이론적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데 하나는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화 가설(socialization hypothesis)'이다.⁵³⁾

결핍가설이란 한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들에 가장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개인들은 자신의

53) Inglehart, Ronald(1990). Values Ideology and Cognitiv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s. Dalton and M.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pp.43-66.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개인들은 탈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사회화 가설이란 주로 어린 시절이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생활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불안정한 문화적 배경에서 사회화를 경험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매우 물질주의적인 가치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과 '사회화 가설(socialization hypothesis)'에 기초한 초기 사회화 이론(early socialization theories)에 의하면 인간은 가치를 선택할 때 생존을 위한 필요요건 중에서 가장 긴급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가치부터 선택하며, Maslow, H. Abraham(1954)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욕구가 어느정도 만족되고 나서야 비물질적인 가치 즉, 사랑·귀속감·자기발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Inglehart(1990)는 이러한 가치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 지적인 가치나 애타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인간의 인격 형성기에 수립된 일정한 가치 우선순위가 성년기에 가서도 상당히 지속된다는 플라톤(Platon) 등 현대 사회화 학자들의 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듯이 초기 형성된 인격과 환경적 요소가 개인차원보다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3) 가치변화를 위한 여가·관광체험 중요성

이번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들이기에 여가는 그들의 생활이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중요한 영양원이 되며, 아울러 전인적 발달의 기본 원동력이 된다.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청소년기의 여가는 우선 그들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청소년과 그들의 문제에 대한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Maslow, Abraham H. 는 인간본성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견해를 갖고서 인간의 욕구들이 어떤 계층을 이루고 있음을 착안하여 이를 다섯 가지의 욕구로 분류하였다. Maslow의 욕구 5단계는 욕구의 위계를 인정하고 하위단계에서 점차로 상위단계로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1단계는 신체적·생리적 욕구로서의 의·식·주·性(성)등의 기본적 욕구이며,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생명,

생활, 외부로부터의 자기보호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서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이며, 4단계는 존경에 대한 욕구로서 존경, 자존심, 승인 등의 욕구이며, 5단계는 자기실현의 욕구인데 레크리에이션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요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소속 및 애정의 욕구나 존경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이란 본래가 자기표현, 자기해방, 그리고 자기확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실현을 위한 좋은 계기와 과정이 레크레이션에 있다고 정의 한다.

청소년의 욕구충족은 매우 필요하며, 긴급하고 절박하게 요구되는 어떤 것으로 욕구가 충족될 시에는 성장이 좀 더 균형 잡히고, 잠재력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될 시에는 성장이 좀 더 균형 잡히고, 잠재력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심리적으로 풍부한 삶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해지며 나아가 과행행위를 통해서 욕구불만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며, 또한 비행 등의 청소년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주어진 여가를 무의미하거나 혹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흘러 보내기 쉽다. 가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어진 여가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사회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적이고 퇴폐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구성원들이나 친척·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모처럼의 시간을 갖게 되면 기껏해야 그 여가 시간을 실컷 먹고, 술 마시고, 화투 놀이나 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올바른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그 만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비행은 주로 여가 시간에 일어나며,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여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여가욕구에 맞춰 여가를 허용한다 해도 이들이 주어진 여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답답함의 분출구로만 여기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여가를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선용하게 되면 청소년이 여가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내게 되는 것이다.⁵⁴⁾

이처럼 청소년의 여가욕구에 따른 여가는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가 활동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학교의 행정가와 교사는 청소년 여가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Mundy & Odym은 여가교육을 여가와 생애주기 및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인간 성장의 과정으로 보면서 여가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여가교육은 여가의 가치·태도·목적 등을 동일시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둘째, 여가교육은 여가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갖도록 선택 사항을 늘려주는 과정이다. 셋째, 여가교육은 여가의 활동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넷째, 여가교육은 인생의 각 주기, 즉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장진호는 청소년 여가교육의 중요성을 다음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여가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여가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여가활동을 준비시켜 건전한 성인기의 여가생활과 여가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교육은 학교의 교과활동의 특성인 지나친 입시경쟁의 원리를 보완하고 그들의 활동성, 주체성, 자기 표현 및 자발성과 사회성 등의 사회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의 여가교육은 대부분 특별 활동과 과외 활동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별활동은 Home Room 활동, 학생회 활동, Club활동, 학생 집회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여가교육의 일환인 Club활동이 근래에 이르러 각 급 학교에서 정규 시간으로 학교와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정서 활동, 각종 스포츠 활동 등으로 체제는 되어 있으나 그 실시 과정 및 내용 등에서 참다운 정서와 여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Worldvision”이라는 국제 NGO 에서는 여가활동 중 인성에 대한 바른 품성을 갖추기 위한 가치변화에 맞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각 교육청과 검증된 MOU를 통해 실시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제주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인

54) Mundy, J. & Odum, L.(1979)., *Leisure Education :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pp.6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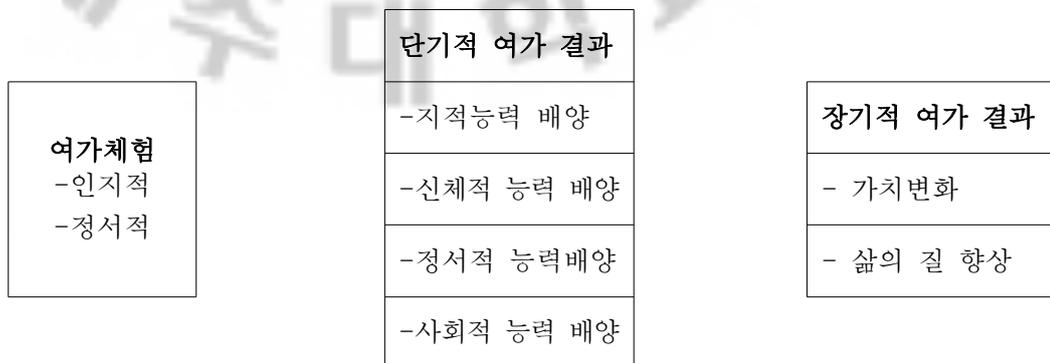
식의 전환, 나눔과 배려로 존재에 대한 감사, 등 가치변화를 통해 미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적 리더를 키우는데 검증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여가활동은 교육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지도력이 필요하고 활동의 내용과 활동의 장 등 청소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 전문기관의 참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배려와 욕구가 포함된 여가·관광체험은 우리 청소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여가·관광을 통한 가치변화

여가·관광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이다. 이러한 만족은 여가·관광행동에서 여가동기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순환을 한다. 즉, 지속적인 순환 속에서 여가경험은 여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는 크고 작은 결과를 남긴다. 즉, 여가 경험의 결과는 다음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여가 경험의 결과



자료: 고동우, 2007 p.214 정리

여가활동의 단기적 결과는 신체적 능력,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함양 등으로 그 영역을 나눌 수 있다. 이 네 가지 개인적 역량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가치변화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다. 여가활동이 정서적 효과를 지닌다는 말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차원과 타인이나 사물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경험을 통한 스트레스 완충과 더불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⁵⁵⁾

Shary & Iso-Ahola, (1989), 고동우(2007)는 인지적 능력의 향상의 결과는 지능, 이해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창의력 등의 요소가 관광·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지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가경험은 곧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기존중감의 증진을 수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여가·관광을 통하여 사회화 능력이 증진된다는 결과는 여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성영신 외, 1996). 가치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삶의 질은 사회적 역할의 이해, 대인관계의 기술의 습득 및 발휘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사회화 능력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진 여가활동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많았다.

이러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크게 여가·관광체험은 감정공유와 경험학습이라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하여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대감,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정체감을 증진 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동우, 2007). 결국, 여가·관광욕구와 체험, 그리고 결과까지의 과정은 가치변화를 통해 풍성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자연스럽게 포괄적 관광의 Goal로 연결된다.

Beard와 Ragheb(1980)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만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11세부터 58세까지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화활동이 가장 높은 여가만족수준을 보였고, 스포츠, 사교, 옥외, 취미 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동적인 여가체험보다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체험이 수동적 여가보다 최상의 각성수준을 나타내고 심리적 행복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가·관광체험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평가 반응(만족이나 불만족) 등이 지각되고 이러한 것은 회상단계에서 반복적 평가로 가치변화가 이루어 지며 자기발견이란 최상의 욕구에 도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55)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a). 여가경험의 심리적 본질: 재미란 무엇인가, 『소비자학연구』, 7(2), pp.3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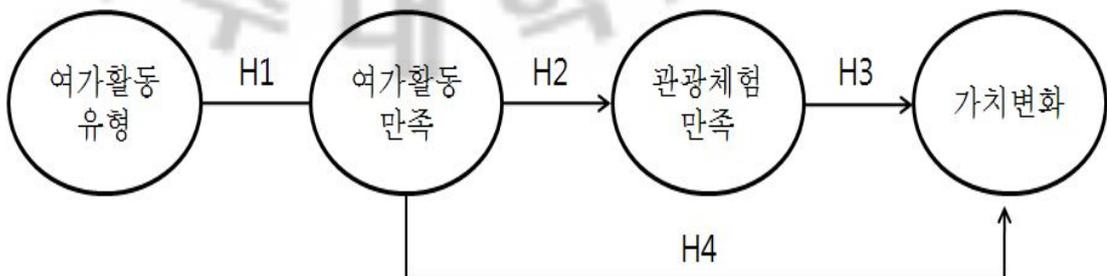
Ⅲ. 研究方法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만족과 관광 체험만족이 가치변화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 여가활동만족과 관광 체험만족을 설정하고, 종속변수에는 관광 체험만족과 가치변화를 각각 설정했다. 추가적으로 표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과 가치변화의 차이를 보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앞의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표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여가활동 만족은 관광체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관광체험 만족은 긍정적인 가치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만족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설계

1) 조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만족, 관광체험 만족, 가치변화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여가활동과 관광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긍정적 가치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가활동과 관광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각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 타당성을 검증, 둘째, 여가활동 만족이 관광체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셋째, 관광체험 만족이 긍정적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법(questionnaire)을 이용했으며, 2011년 봄시즌 제주에서 진행한 축구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9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연구자가 축구동아리에 참여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표본 추출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한 이후 작성하여 우편을 통한 조사를 실행했으며, 응답자들은 설문지에 표시된 지시어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의 유형은 참고한 선행연구 내용에서 Lintzin(1973)은 여가활동을 동기 및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활동, 정신적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Ragheb(1980)⁵⁶⁾은 여가활동을 대중 매체형 사회적 활동형, 야외 활동형, 스포츠 활동형, 문화 활동형, 취미 활동형 등 6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42개의 세부 종목으로 분류하였다. Chubb(1981)는 여가활동을 주

56) Ragheb. M. G.(1980)., 『Intert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y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2), pp.138-149.

관적 행동을 의미하며 여가의 객체와 매체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Kaplan(1971)은 여가의 가치지향에 따라 여가의 유형을 가치지향형인 사교 활동과 단체 활동, 규율과 전통을 중시하는 게임과 예술, 행동 지향성을 강조하는 이동활동과 비이동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 감상활동, 사교활동, 여가활동, 인터넷 게임 및 오락”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나열된 보기 중에 구분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명목척도를 사용했다.

(2) 여가활동 만족

여가활동 만족은 참고한 선행연구 내용 “만족”은 관광체험의 후속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으로, Lounsbury & Polik(1992)은 관광에서 ‘전반적인 사후 만족(overall post-hoc satisfaction)’은 관광하는 동안의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개인이 내리는 전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접근은 ‘현실보다 현실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현실의 개인적인 해석을 표현한다(Hawkin et al., 2001). 이러한 주관적 측정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가치 또는 심리상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므로 개인의 생활경험과 , 만족, 행복감 등을 전체 생활에서 평가하고 기술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즉 여가활동의 만족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임을 연구결과 증명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만족을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여가활동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

(3) 관광 체험

관광 체험 만족은 참고한 선행연구 내용에서 Mazurskey(1989)는 관광체험과정에서 ‘장래 행동 의도’는 관광지에 대한 기대와 기대 불일치 수행만이 아니라 과거 다른 경험, 사회적 규범 및 만족의 정도가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천재석(1993)은 선진국의 관광에 대한 발전 배경과 현황분석을 통해

관광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장혁래(1994)는 건전한 관광의 실현과 진흥을 위한 대책을 위해 국민관광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광을 위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 체험 만족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변화”로 정의했다. 이러한 관광 체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총 3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

(4) 가치 변화

가치변화는 참고한 선행연구 내용으로 Inglehart(1997)의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과 ‘사회화 가설(socialization hypothesis)’에 기초한 초기 사회화 이론(early socialization theories)에 의하면 인간은 가치를 선택할 때 생존을 위한 필요요건 중에서 가장 긴급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가치부터 선택하며, Maslow, H. Abraham(1954)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욕구가 어느정도 만족되고 나서야 비물질적인 가치 즉, 사랑·귀속감·자기발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Inglehart(1990)는 이러한 가치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 지적인 가치나 애타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변화를 “자기발견”으로 정의했다. 친구들과의 친해짐, 인간관계 개선, 자기개발 등 이러한 가치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총 3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

3.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방법

1) 설문지의 구성

본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설계를 위해 문헌조사와 사전테스트(Pretest)를 거쳐 작성하게 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총 4개 항목으로 설정했다.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Maslow(1954), Schwartz(1987), Hessen(1992), 이승훈(1996), 이을상(1997), 오현일(1998), Lintzin(1973), Orthner(1995), Ragheb(1980), Lounsbury(1992), Gnoth(1997), Fridgen(1984), Mennell(1987),

Inglehart(1997), 박종삼(2010)⁵⁷⁾, 신정식(2010)의 논문의 설문을 참고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5개 문항, ‘여가활동 형태’ 6문항, ‘여가활동 만족’ 4문항, ‘관광 체험’ 3문항, ‘가치변화’ 5문항 등 총23문항으로 구성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여가활동 형태’는 명목척도를 사용해 측정했다. ‘여가활동 만족’, ‘관광 체험’, ‘가치변화’에 대한 문항은 <표3-1>에서 보듯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항목들에서 각각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표3-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	설문 문항	척도	선행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5	1, 8-1~8-4	명목척도	
여가활동 형태	6	2-1~2-4, 3, 4	명목척도	이승훈(1996).오현일(1998) Lintzin(1973).Orthner(1995)
여가활동 만족	4	6	등간(Likert 5점) 척도	Ragheb(1980).Lounsbury (1992).Hawkin(2001)
관광 체험 만족	3	7	등간(Likert 5점) 척도	김현(2003).Gnoth(1997).Fridg -en(1984).Mannell(1987)
가치변화	5	5	등간(Likert 5점) 척도	Inglehart(1997).이을상(1997). Hessen(1992).Maslow(1954) 박종삼(2010).Schwartz(1987)
계	23			

도출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됐다.

2)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설계에 의해서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 모집단은 관광 사업대상인 관 및 아동센터(가정개발센터)를 선정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축구동아리 프로그램 전국 8개 지역 동해, 목포, 전주, 군산, 제천, 정읍, 광주, 제주지역 관 및 가정개발센터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설문조사 시점은 2011년 4월 9일부터 2011년 4월 28일(3주간) 동안으로 축구동아리에 참여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표본 추출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한 이후 작성

57) 박종삼(201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월드비전,pp347-385

하여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각 지역의 실무자와의 면밀한 접촉을 통한 관심을 요구하였다

총 230부를 배포하였고 211부(91.7%)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11부를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 200부(94.8%)를 확정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했다.

3) 분석방법

실증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인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조사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차이분석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했으며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實證分析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 197명(98.5%), 여자 3명(1.5%)으로 표본이 이루어졌다. 연령별 분포는 13세~14세가 82명(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세~12세 57명 (28.5%), 15세~16세 39명(19.5%), 9세~10세 22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로는 초등학생이 128명(64.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중학생이 72명(36.0%)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가족 구성은 조부모 가족이 86명(43.0%)로 가장 많았으며 핵가족이 51명(25.5%), 편부모 가족 35명(17.5%), 기타 28명(14.0%)로 나타났다. 소속 단체 유형 경우에는 가정개발센터가 121명(61.5%), 관이 79명(39.5%)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197	98.5
	여성	3	1.5
나 이	9세~10세	22	11
	11세~12세	57	28.5
	13세~14세	82	41.0
	15세~16세	39	19.5
학 력	초등학생	128	64.0
	중학생	72	36.0
가족구성	핵 가족	51	25.5
	편부모 가족	35	17.5
	조부모 가족	86	43.0
	기타	28	14.0
소속단체 유형	관	79	39.5
	가정개발센터	121	60.5
총 계		200	100

2) 표본의 여가 형태 특성

<표 4-2> 표본의 여가 형태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현재 참여 여가활동	주중	스포츠 활동	128	64.0
		기타 여가 활동	24	12.0
		인터넷게임, 오락	48	24.0
	휴일	스포츠 활동	126	63.0
		기타 여가 활동	34	17.0
		인터넷게임, 오락	40	20.0
최근 1년간 여행횟수	1회	44	22.0	
	2회	56	28.0	
	3회	39	19.5	
	4회	24	12.0	
	5회이상	37	18.5	
여행 동반자	혼자	3	1.5	
	친구	49	24.5	
	가족	65	32.5	
	사회 사	83	41.5	
합계		200	100	

설문지 응답자의 여가 형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가활동 항목 중 기타 여가활동의 경우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 활동, 사교활동, 여행, 관광체험을 포괄하여 기타 여가활동으로 나타낸 수치이다. 현재 참여 여가 활동을 주중과 휴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으며 주중에 참여 여가활동은 스포츠 활동이 128명(64.0%)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게임, 오락이 48명(24.0%), 기타여가활동 24(12.0%)로 나타났다. 휴일에 참여중인 여가활동으로 역시 스포츠 활동이 126명(6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게임, 오락이 40명(20.0%), 기타여가활동 34(17.0%)으로 주중과 휴일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주중과 휴일을

동일시 하여 현재 참여 여가활동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희망 여가 활동으로 주중에는 기타 여가활동이 99명(5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활동 70명(35.5%), 인터넷게임, 오락 28명(14.2%)순으로 나타났다. 휴일의 경우에는 기타 여가활동이 107명(5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활동이 76명(38.6%), 인터넷게임, 오락이 각 20명(10.2%)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중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주중과 휴일을 동일 시 하여 희망 여가활동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근 1년간 여행횟수로는 2회가 56명(28.0%)로 가장 많았으며 1회 44명(22.0%), 3회 39명(19.5%), 5회이상 37명(18.5%), 4회 24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동반자의 경우 사회사가 83명(41.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 65명(32.5%), 친구가 44명(22.0%) 순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복수 문항들로 측정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 통계 기법을 이용해 척도순화를 수행했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복수양식법(parallel-forms technique), 반분법(split-half method),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method)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적일관성에 의한 방법이다.⁵⁸⁾

내적일관성은 하나의 구조를 여러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 혹은 동질성을 갖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적일관성은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일관성이 높다. Cronbach의 alpha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경우 Cronbach의 alpha 계수의 크기를 저해하는

58) 채서일(2007).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엠엔박스. pp.179-182.

항목들을 제거함으로써 전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⁵⁹⁾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한 내적일관성 검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Kaiser(1970)의 표본 적합성을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변수들 내부의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본 적합성이 0.8 이상을 나타내면 상당히 좋으며, 0.4 미만의 값을 보이면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값으로 간주하고 있다. 순화과정은 개별 측정척도들의 단일 차원성을 전제로 하는 측정척도를 검토했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는 변수를 파악해, 요인적재치가 0.4 이상 중복 적재된 경우와 공통성(communiality)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검토했다. 또한, 이들 항목 중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 이상이 되는 항목을 사용했다.

(1-1)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4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608,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122.743(sig=.0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가활동 만족요인은 “사교활동 만족”, “취미교양활동 만족”, “관람 감상활동 만족”, “관광 체험활동 만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여가활동 만족”으로 명명했다. 또한 이 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2.975 총 분산설명력이 74.376%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0.6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

59) 이학식·임지훈(2007). 『SPSS 12.0매뉴얼』. 파주: 법문사. pp.122-123.

<표 4-3>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여가 활동 만족	사교활동(친구만나기, 모임, 종교활동)	3.42	.843	.886		
	취미 교양활동(학습, 요리, 독서, 예술활동)	3.34	.839	.710		
	관람 감상활동(영화, 음악, TV, 비디오, 잡지)	3.41	.824	.697	2.975	.616
	관광체험활동 (여행, 놀이공원, 휴양지, 봉사활동, 스포츠)	3.82	.793	.681		
KMO= .608 Chi-Square=122.743		sig= .000	총 분산설명력=74.376%			

(1-2) 관광 체험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관광 체험만족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3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640,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195.592(sig=.0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관광 체험만족은 “스포츠 체험활동 만족”, “여행 일정 만족”, “관광지 체험활동 만족”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관광 체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값은 2.079이고 총 분산설명력이 69.31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0.7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4> 관광 체험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관광 체험	스포츠 체험활동은 만족하십니까?	4.16	.878	.792		
	여행일정은 만족 하였습니다습니까?	3.95	.890	.770	2.079	.774
	관광지 승마, 카트, ATV 체험은 만족하십니까?	4.35	.719	.517		
KMO= .640 Chi-Square=195.592		sig= .000	총 분산설명력=69.311%			

(1-3) 가치변화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치변화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5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63,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422.228 (sig=.0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5> 가치변화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가치 변화	성취감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	3.82	.840	.662	3.228	.859
	새로운 경험으로 만족감을 찾고 함께하는 친구(가족)들과 친해진다	3.91	.814	.705		
	여가 활동으로 나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60	.806	.643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학교, 가정)이 활기차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았다	3.82	.802	.650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가 해소 되었다	4.13	.754	.568		
KMO= .863		Chi-Square=422.228	sig= .000	총 분산설명력=64.556%		

가치변화 요인은 “성취감을 갖고 다양한 경험 얻음”, “새로운 경험 만족감과 동반자 유대강화”, “여가활동을 통한 장점 발견”,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 활기참, 가족 소중함”, “여가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가치변화”로 명명했다. 이들 요인의 고유값은 3.228, 총 분산설명력이 64.556%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0.8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

3. 연구가설의 검증

1) 가설 1 검증

가설 1.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주중 여가활동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휴일 여가활동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표본에서 측정된 여가활동의 유형은 주중 현재 참여중인 여가활동, 휴일 현재 참여중인 여가활동, 주중 참여 희망 여가활동, 휴일 참여희망 여가활동으로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나 표본의 대상이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정확한 응답을 보인 주중 여가활동과 휴일 여가활동 2개 항목으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항목에 따른 여가 활동 만족차이는 각 항목별로 다음 표와 같다.

<표 4-6> 주중 참여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여가활동 만족	인터넷 게임	3.21(a)	.599	7.156	.001***
	스포츠활동	3.54(b)	.630		
	기타 여가활동 (취미,관람,관광체험, 사교활동)	3.70(b)	.403		

주1) *** p<0.01

주중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차이는 <표 4-6>에서 나타나듯이 F값 7.156, 유의수준 0.01에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는 집단의 경우 스포츠 활동과 기타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휴일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여가활동 만족	인터넷 게임	3.33	.659	1.453	.236
	스포츠활동	3.51	.591		
	기타 여가활동 (취미, 관람, 관광체험, 사교활동)	3.52	.661		

주1) *** p<0.01

휴일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차이는 <표 4-7>에서 나타나듯이 F값 1.453, 유의수준 0.236으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참여, 현재 참여중인 주중 여가 활동 유형과 휴일 여가 활동 유형에 따라서 여가활동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 하였으며 주중 여가활동에 따라서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휴일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2) 가설 2 검증

가설 2. 여가활동 만족은 관광체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여가활동 만족과 관광체험 만족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여가활동 만족과 관광체험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영향관계 분석 전에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8> 여가 활동 만족과 관광체험 만족과의 상관관계분석

	여가활동 만족	관광체험 만족
여가활동 만족	1	-
관광체험 만족	.393**	1

주) ** p<0.01

분석 결과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가 활동 만족과 관광체험 만족간에는 유의수준 p<0.01에서 0.39이상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여가 활동 만족과 관광체험 만족과의 영향관계분석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관광 체험만족	(상수)	2.683	.248	10.841	.000**
	여가활동만족	.421	.070	.393	6.017
F값=36.210 R ² =.155 수정된 R ² =.150 유의확률 0.00**					

주) ** p<0.01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²)는 0.155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15.5%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결정계수가 높지 않은 이유로는, 관광체험 만족은 여가활동 만족과의 연계성 보다는 일상을 벗어난 관광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만족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만족에

($\beta=0.421$)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됐다.}

3) 가설 3 검증

가설 3. 관광체험 만족은 긍정적인 가치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관광체험 만족과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관광 체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관광 체험만족과 가치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10>와 같다.

<표 4-10> 관광체험 만족과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분석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가치 변화	(상수)	1.412	.269	5.328	.000**
	관광체험만족	.589	.064	.547	9.205
F값=84.508 $R^2=.300$ 수정된 $R^2=.296$ 유의확률 0.00**					

주) ** $p<0.01$

관광 체험만족요인은 가치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299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29.9%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만족에 ($\beta=0.588$)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됐다.}

4) 가설 4 검증

가설 4.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만족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 만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 보기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인 여가활동 만족이 매개변수인 관광 체험 만족과의 영향관계는 가설 2의 결과와 같이 $F값=36.210$, $R^2=.155$ 에서 관광 체험 만족 $t=6.017(p<.001)$ 회귀계수 ($\beta=0.421$)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표4-11>의 결과와 같이 $F값=48.068$, $R^2=.195$ 에서 가치변화 $t=6.933(p<.001)$ 회귀계수 ($\beta=0.510$)의 결과값이 나타났다.

<표 4-11> 여가활동 만족과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분석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가치 변화	(상수)	2.080	.260	8.007	.000**
	여가활동 만족	.510	.073	.442	6.933
$F값=48.068$ $R^2=.195$ 수정된 $R^2=.191$ 유의확률 0.00**					

주) ** $p<0.01$

3단계로 여가활동 만족과 관광 체험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4-12>와 같이 $F값=55.418$, $R^2=.360$ 에서 여가활동 만족 $t=4.330(p<.001)$, 관광 체험만족 $t=7.121(p<.001)$ 각각의 회귀계수는 ($\beta=0.309$), ($\beta=0.475$)로 나타났다.

<표 4-12> 여가활동 만족과 관광체험만족의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분석

요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가치 변화	(상수)	.806	.293		2.748	.007**
	여가활동 만족	.309	.071	.268	4.330	.000**
	관광체험 만족	.475	.067	.441	7.121	.000**
	F값=55.418 R ² =.360 수정된 R ² =.354 유의확률 0.00**					

주) ** p<0.01

4단계로 2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eta=0.421$)가 3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eta=0.3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관광 체험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4.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여가 활동 만족과 관광 체험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했다. 이를 위하여 여가 활동 만족과 관광 체험만족 가치변화를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도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검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중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차이는 F값 7.156, 유의수준 0.01에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휴일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에 대한 차이는 F값 1.453, 유의수준 0.236으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155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15.5%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만족에 ($\beta=0.421$)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광 체험만족요인은 가치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299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29.9%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만족에 ($\beta=0.589$)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 만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 보기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인 여가활동 만족이 매개변수인 관광 체험 만족과의 영향관계는 가설 2의 결과와 같이 F값=36.210, $R^2=.155$ 에서 관광 체험 만족 $t=6.017(p<.001)$ 회귀계수 ($\beta=0.393$)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표4-11>의 결과와 같이 F값=48.068, $R^2=.195$ 에서 가치변화 $t=6.933(p<.001)$ 회귀계수 ($\beta=0.442$)의 결과값이 나타났다.

3단계로 여가활동 만족과 관광 체험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4-12>와 같이 F값=55.418, $R^2=.360$ 에서 여가활동 만족 $t=4.330(p<.001)$, 관광 체험만족 $t=7.121(p<.001)$ 각각의 회귀계수는 ($\beta=0.309$), ($\beta=0.441$)로 나타났다.

4단계로 2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eta=0.421$)가 3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eta=0.3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관광 체험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의 해석은 <표 4-13> 과 같다.

<표 4-13> 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

가설	관계	연구가설 채택여부	요약결과의 해석
가설 1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주중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간에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만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여가활동 만족은 관광체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여가활동 만족 요인은 관광 체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관광체험 만족은 긍정적인 가치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관광 체험만족요인은 가치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만족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관광 체험만족의 매개변수 효과를 알아보기위해 4단계에 거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2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eta=0.421$)가 3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eta=0.3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結 論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논문에서는 2011년 봄 시즌 제주에서 진행한 축구동아리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복지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축구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나 논자가 실증적 연구를 하기위한 범위적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과 실증분석에서 관광체험으로 표현하였다. 실증적 관광 체험과 가치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전개한 후 4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가설 중에서 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 만족은 관광 체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 체험 만족은 긍정적인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 만족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연구분석 설계모형으로 제시하여 관광 체험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관광 체험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광 체험 만족은 가치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았다면, 이번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주말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에는 많은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주중 여가활동 참여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Beard와 Ragheb(1980)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만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조사결과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 평상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일수록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 만족을 갖고 있는 긍정적 대상계층은 관광에 만족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회귀모형 적합성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여가활동 만족과 관광 체험만족의 가치변화의 차이를 보고

자 하였는데 관광 체험 만족요인은 가치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만족이 매개변수로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에 따른 실증분석은 교차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시기에는 많은 유의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인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여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여가활동 유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대상자들은 만족도가 높았고, 그들이 복지관광의 주체가 되어 가치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은 다양한 소그룹 활동, 동아리활동 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문을 열어 놓아 참여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인격 형성기에 수립된 일정한 가치 우선순위가 청년기에 가서도 상당히 지속된다는 플라톤(Platon) 등 현대 사회화 학자들의 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듯이 초기 형성된 인격과 환경적 요소가 개인차원보다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여가·관광활동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체험에 대한 평가 반응(만족이나 불만족) 등이 지각되고, 이러한 것은 회상단계에서 반복적 평가로 가치변화가 이루어지며 자기발견이란 최상의 욕구에 도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 <표4-10>의 관광체험 만족과 가치변화와의 영향관계분석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R^2=0.296$ 은 가치변화에 여가활동 만족과 비교해 볼 때 관광체험 만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체험 만족요인은 가치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가활동 만족이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관광 체험만족이 매개변수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에서 Ragheb와 Griffith(1982)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만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여가활동 선택이 개인적으로 자유를 제공받게 되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기가 유발된다. 수동적인 여가체험보다 능동적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체험이 수동

적 여가보다 최상의 각성수준을 나타내고 성취감 향유 및 개성연출,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등 심리적 행복감으로 연결되는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신선정·고동환·여정태(2008)는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관광상황의 단계에서 취약계층은 일반 집단에 비해 관광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관광경험의 단계에서 탈일상성과 신기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는 새로운 것이나 낭만적인 측면, 환경변화를 감지할 때 나타났다. 셋째, 관광결과 단계에서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정체성 자각과 죽음에 대한 성찰, 그리고 무기력함·불안·두려움 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은 복지관광을 통해 삶의 활력과 문제 극복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국민 복지를 실현하고자 국내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첫째,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관광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복지관광 수요확대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셋째, 경제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자력으로 관광이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생계형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문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현(2004)은 복지관광이 지속적이며 성공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복지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복지관광전문가를 육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인 직접적 도움을 줌으로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복지관광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복지관광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육성된 지도자 등을 인재뱅크에 등록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한국은 현재 소외계층이 관광이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업, 국민, 행정을 대상으로 관광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은 복지관광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김현주(2004)는 여행바우처에 대한 제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여행바우처 기본방향은 장·중·단기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첫째, 단기로 중소기업 근

로자 관광향유권 증진을 통해 관광복지 향상을 가져오며 둘째, 중기 정책목표로 국민관광 활성화를 관광소비 촉진을 유발하여 셋째, 장기 정책목표로 지방관광 활성화를 가져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시범운영 단계에서 총 20억원의 재원으로 정부에서 여행바우처 비용의 30%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66.6억 원의 관광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

여행바우처 공급자인 관광사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관광상품을 제공하는데 소홀하다면 소비자들은 공급자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행바우처 지원 대상은 관광 향유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소득 즉, 적정 구매력을 갖고 있는 계층이어야 한다고 정의 하였다. 복지관광 측면에서 보면 소외 계층 즉 사회적 저소득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사회적 저소득층은 현실적으로 여행경비 일부지원을 통한 관광소비 촉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21C,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체제로 변모해 갈 것을 시사했고, 한 고위 여권 인사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자아실현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 통합구조로 선제적, 예방적,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안하였다. 자본주의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사각지대는 발생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분명 발생될 것으로, 공감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형성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권장과 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복지관광의 최고의 협력자는 정부와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 기관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복지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관광지, 기념관 등 다양한 여행 바우처 제도의 실행여부 또한 시험대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의 가치변화를 즐기며 할 수 있는 맞춤형 여가·관광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여 자기발견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 및 시민단체, 또는 NGO등 다양한 채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관광 체험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동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서 여가·관광의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써 Maslow의 욕구단계설의 최종 단계인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은 소외감과 주변의식, 사회에 대한 두려움 등을 벗어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측면에 나타나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포괄적인 선행연구가 되어야 하나 여가활동, 관광체험, 가치변화에 대한 부분적 연구로 체계적인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특성이 복지관광 체험에 연계된 이론적 고찰을 이끌어 내는데 부족하였다. 둘째, 실증분석 단계에서 표본이 9세부터 14세까지로 가치변화에 대한 이해력이나 연구목적에 맞는 가치기준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셋째, 축구 동아리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니 남학생으로 한정되어 성 비간 나타나는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만족, 복지관광에 미치는 가치변화에 대한 다양한 결과 도출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넷째, 전국을 대상으로 보편 타당한 표본 도출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전북, 강원, 전남, 제주 등으로 한정되어 환경적 특성을 살리는 균형적 연구 표본을 찾지 못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 표본이 200부로 신뢰도 면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였다. 여섯째, 인구통계학적 분류에서 연령별, 학력별, 소속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관광 체험에 있어 만족도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곱째, 연구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관광의 참여에 대한 제약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원인규명이 부족했다. 여덟째, 가치 변화 측정에 있어서 한 시점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이를 횡단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가치변화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근거로 하여 후속연구에는 복지관광 체험이 국민에게 미치는 삶의 질의 영향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고찰과 지표를 개발하고,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만족, 복지관광에 미치는 가치변화에 대한 청소년에 관계되는 남·녀 성 비별 종합적인 결과 도출을 이끌어 내어, 의미 있는 표본이 되도록 측정할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가치관의 형성시기에 올바른 정

립을 위해 교육적 가치를 부여한 여가놀이문화와 접목한 복지관광 체험 프로그램의 적용범위와 개입단계, 미래가치의 연결 희망단계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가활동 만족을 통한 복지관광 체험 만족이 가치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가, 자기발견을 통한 가치 실현이 행복한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參考文獻>

1. 국내문헌

1) 서적

이장춘(1986). 『복지관광 정책론』, 서울, 대왕사, pp.27-35

이학식·임지훈(2007). 『SPSS 12.0매뉴얼』. 파주: 범문사. pp.122-123.

채서일(2007).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엠엔북스. pp.179-182.

2) 논문

고동우(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동우(2008). 『여가치료의 관점으로 본 관광 체험의 심리적 효과』, (사)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김계담(2003). 제주지역 문화관광마케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탐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훈(1995). 중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도희(1999). 레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오성(2010) 스포츠관광자의 참가동기, 선택속성, 인지된가치, 관광만족, 재참가의도 및 구전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희(2005). 후원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마케팅 전략,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희. 이용규. 김용완(2003).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 복지관광정책연구』, 관광연구저널(제17권 제1호).

- 김화자(2009).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방안 연구 : 문화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노경희(2005). 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노정호(2007).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문화관광부 주최 문화나눔 사업 충남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단아름(2005). 기업의 스텝어드쉽을 통한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박도형(1995).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박종삼(201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월드비전 한국.
- 박희봉·이희창·전지용(2008). 『한·중·일 3국의 가치변화성향 분석 - 신세대와 기성세대간 비교』, 한국행정논집(제20권 제2호).
- 서대경(2008). 관광객의 관광 전과 관광 후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신동주(1990).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신선정(2007).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관광 의미와 제약요인 : 복지관광 사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신선정·고동완·여정태(2008). 『복지관광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의 의미분석』, 관광연구,23(3):pp.95-117
- 신정식(2010). 『한국의 복지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산업정보대학 학회지.
- 양선정(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분석을 통한 여가활용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오정근(2001). 관광체험이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유준상(1986). 저소득층의 국민관광참여기회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혜신(1989). 사회복지와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원(1987). 복지증진을 위한 관광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범. 강은희(2010). 『화장품 광고의 소구유형과 소비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회.
- 이수철. 이은경(2009). 『트렌드와 섬유패션 제품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가치변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이충기. 조윤미(2004). 『CVM을 이용한 체험관광의 가치평가』, 관광연구저널(제18권 제2호).
- 이홍장(2006).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지위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문수(2006). 중·고등학생의 가치유형과 정치적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속근(2002).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을 위한 마케팅 전략,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순(1992). 관광마케팅의 사회적 컨셉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봉원(2003). 자원봉사 체험활동이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 Bidwell, C.M. Csikwzenthmihalyi, L. Hedges, and B. Schneide(1977).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work for American adolescents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toper, R. Edignton, et al(1995).,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
Dubque, LA: WM. C. Brown Communications, Inc.
- Cohen, E(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p.15.
- Dann, G. M. S(1981)., "Tourist motiv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p.8.
- Drewnowski, Jan(1970).,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Geneva:United Natio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0.3.
- Fridgen, J. D(1984).,"Environmental psychology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p.11.
- Gitelson, R. j., & Crompton, J. L(1984)., "Insights into the repeat vacation phenomen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p.11.
- Gnoth, J(1997)., "Tourism motivation and expect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 24(2).
- Inglehart, Ronald(1990). "Values Ideology and Cognitin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s". Dalton and M.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pp.43-66
- Katz, D(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p.24.
- MacCannell, D(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ety*』 ,p.79.
- Mansfeld, Y(1992)., "From motivation to actual trav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p.19.
- Maslow, Abraham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Harper & Row, Publishers.
- Mayo, Edward J. & L. P. Jarvis(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Boston:CBI Publishing Co.
- OECD(1982),『*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Part II:Selected Social*

Indicator Disaggregations)”, Paris.

Saveriades,A(2000).,“*Establishing the social tourism carrying capacity for the tourist resorts of the east coast of the Republic of Cyprus*”Tourism management, VOL21, NO2.

3. 기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복지포털 복지넷(<http://www.bokji.net>)

한국문화관광 정책 연구원(<http://www.kcti.re.kr>)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가치변화에 관한 연구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김관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문에 응해주신 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복지관광 체험이 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서 실증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 연구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9일

지도교수 : 서용건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교수

조 사 자 : 김관호(석사과정)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연락처 : 010-2690-2088

e-mail : kwan2087@hanmail.net



1. 아래의 <보기>를 보고 가장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께서 현재 주중에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인가요?
_____번

1-2 귀하께서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인가요?
_____번

1-3 만약 현재 자주하는 여가활동과 다르다면 주중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인가요? _____번

1-4 만약 현재 자주하는 여가활동과 다르다면 휴일이나 방학 때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인가요? _____번

<보기>

번호	여가활동별 내용
①	스포츠 활동(걷기, 축구, 레크레이션, 등산, 수영, 낚시 등)
②	취미교양활동(학습, 서예, 요리, 독서, 예술활동 등)
③	관람감상활동(영화, 음악, TV, 비디오, 신문/잡지 등)
④	사교활동(친구만나기, 모임참가, 종교활동 등)
⑤	여가활동(여행, 관광체험 등)
⑥	인터넷 게임, 오락

2. 귀하께서 최근 1년 동안 집을 떠나 참여한 여가활동(1박 이상의 여행)회수는 몇 번입니까? _____번

3.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활동(1박 이상의 여행)을 하셨습니까?

- ①혼자 ②친구 ③가족 ④자원봉사자 ⑤사회복지사

4. 다음은 여가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새로운 경험으로 만족감을 찾고 함께하는 친구(가족)들과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즐겁게 성취감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학교, 가정)이 재미 있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 활동으로 나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과 같은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지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관람감상활동 (영화, 음악, TV, 비디오, 신문/잡지 등)	①	②	③	④	⑤
취미교양활동 (학습, 서예, 요리, 독서, 예술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사교활동(친구만남, 모임참가, 종교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관광체험활동 (여행, 승마, 등산, 카트, 농장체험, 봉사체험, 스포츠 체험, 극기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6. 이번 복지관광 체험활동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행일정은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특히 체험활동은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관광지 승마, 카트, ATV 체험은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을 질문 하오니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7-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7-2 귀하의 나이는 ? _____세

7-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재학/졸업 ② 중학교 재학/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졸업

7-4 귀하의 가족은 ?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할머니 ② 할아버지 ③ 아빠 ④ 엄마 ⑤ 형제 ⑥ 기타

◇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Changes by Types of Leisure Activity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Kim, Kwanho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ng-Kun Suh)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satisfaction with social tourism experiences affects value changes and revitalization programs for social tourism experiences in a desirable way.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d that 1)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would affect the satisfaction level, while enjoying leisure activities, 2) the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tourism experience, 3) the satisfaction with social tourism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value changes, 4) the satisfaction with social tourism would be a parameter in establishing how the satisfaction of enjoying leisure activities affect value changes, It also analyzed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among social tourism experiences and value changes with further analysis on they affect each other.

The result of research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social tourism have an effect on value changes. While the initial steps were to investigate how the satisfaction with social tourism experiences affects value changes, the second one was to examine how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affect people's choice of days in a week when to have leisure activity, weekdays and

weekends. The result was that it didn't affect when people participate in the activity among weekdays and weekend days, but that it depends on what kinds of activity people usually hope to engage in on weekdays or weekend days. In addition, as seen in the Beard and Ragheb(1980)'s study, people have the different sense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and their types.

The empirical analysis proved that people who actively enjoy leisure activity at their ordinary time tend to have a positive thinking about leisure activity. And those people with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y show a propensity to satisfy social tourism. The propose of this empirical analysis was to find the difference of value changes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y and social tourism experiences. In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if people feel satisfied with social tourism experiences, they have a positive effect on value changes and that the satisfaction with social tourism experiences positively affects the relations between the satisfaction of doing leisure activity and value changes as a parameter.

In other wards, after participating in the leisure activity or sightseeing, people immediately appraise their satisfaction on what they see and feel, and whenever people recall the moment, they repeatedly evaluate their experiences and end up changing the value of their experiences. After the value changes, people reach the ultimate condition of self-discovery. Ultimately, this study proved that participating in the leisure activity and sightsee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that peoples attainment level of happy life.

Accordingly, we need to actively and consistently support teenagers, who go through the most important period in developing their view of value and personality, to participate in the variety of leisure activity programs. At this respect, civic group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hich are the best cooperators in the sector of social tourism, should play a important role in offering practical programs.

Entering the 21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suggested changing into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and is supported by a prominent member of ruling party who proposed establishing anticipative, preclusive and sustainable welfare system with long-term integral structure helping people reach their dream through self-realization. There are always neglected social groups in the capitalistic societies, which requires a sense of sympathetic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the diverse enabl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tourism on equal footing. In order to offer the customized programs for all people, the related policies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hen people's consciousness are changed, leading to discovering real value of tourism, the general concept of them that have been considered only as things of pleasure and enjoyment will change to a creating new value of tourism industry through experiencing new things, sharing pleasure with other people, and taking more interest in the unprivileged groups. Therefore, we should work together to make our society better, that all people can create their own happiness by themselves.